

다.

신화창조적 저널리즘이란 전쟁보도나 올림픽, 월드컵 같은 대형스포츠행사의 보도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목적 때문에 현실세계에서는 존재하기 힘든 신화를 만들어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하고, 아프카니스탄주의적 저널리즘이란 국내 주요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외면하면서 외국의 주요 사건을 크게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현지정략편승 저널리즘이란 사건이 발생한 현지 정부의 정략에 언론이 알게 모르게 편승함으로써 진실을 외면하게 되는 보도관행을 의미하고, 내정간섭적 저널리즘이란 국가이익의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보도관행을 의미한다.

정책도구적 저널리즘이란 언론이 국가의 정책도구처럼 알게 모르게 정부 입장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관행을 의미한다. 기자는 사건을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국가이익과 정부이익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권이이익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항상 국가와 국민의 편에 서서 보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오보를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우리 나라 기자의 의식차원의 관행으로서는 풍조주의적 경향, 저항주의적 경향, 권위주의적 경향, 징검다리적 경향 등이 존재한다. 풍조주의(風潮主義)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가벼운 태도, 언론이나 저널리즘에 대한 진지하지 못한 태도, 사건을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적당주의적 태도 등을 총칭하는 경향을 의미하고, 저항주의란 사건을 취재·보도함에 있어서 마치 투사처럼 반대하고, 폭로하고, 공격하고, 저항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권위주의란 권력적 권위를 내세워서 취재·보도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언론은 결코 권력기관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봉사기관이며 국민으로부터 권능이 위임된 신탁기관으로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징검다리적 경향이란 기자들이 언론을 천직이나 평생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론을 출세를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한다. 정계를 꿈꾸는 정치부 기자, 관계를 꿈꾸는 정치부 기자, 기업진출을 꿈꾸는 경제부 기자들이 관련 기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관행 속에 오보발생의 가능성이 숨어있게 된다.

4. 개선방향과 대책

오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기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조직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관행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오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오보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인 기자 차원과 언론사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자충원제도의 개선

바른 기사는 바른 기자가 만들고, 반대로 바르지 못한 기사는 바르지 못한 기자가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오보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자의 자질과 전문성과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좋은 기사를 만들려면 좋은 기사를 먼저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자의 충원과정이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란 뜻이다. 따라서 충원방법의 전문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론은 단순한 기능직이 아니고 전문직이며, 기자는 단순한 사인(私人)이 아니고 공인(公人)이다. 언론은 머리의 게임이라기보다는 가슴의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반드시 좋은 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기자를 뽑는 데 국어, 영어, 상식, 논술시험과 더불어 사명감과 동기, 적성과 능력도 함께 테스트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천제나 인턴제도의 효과적 운영도 바람직하고 자격을 대학원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언론이 전문직을 지향한다면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고려가 주어지는 게 마땅하다 하겠다.

2) 교육과 훈련의 체계화

정규적인 학교교육과 직장교육이 기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학과 언론사가 바른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산학협동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뜻이다.

학교에서는 예비기자들에게 바른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 사상, 철학, 법과 윤리, 그리고 비교언론분야의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도의 자유와 책임,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국가의식과 역사의식에 관한 교육도 강화됨이 바람직하다.

바른 기자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학교교육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 학교기관에서 하고 있는 재교육, 외국연수 등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3) 윤리화의 제도적 정착

우리 사회에는 각종 윤리강령과 윤리기구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강령과 기구들이 전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데 있다. 언론은 언론의 특성상 법에 의해서 규제되기보다는 윤리강령에 의해서 자율규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언론사와 언론계는 윤리강령을 제정한 이상 그것이 준수되도록 독립성과 공신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사와 언론계는 윤리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기구가 제도로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리기구가 붕괴되면 그 다음에는 법이 자연스럽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심의기능의 제도화

언론사와 언론계는 다양한 심의기구들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심의기구들이 명실상부하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언론사와 언론계는 더 늦기 전에 기존 심의기구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하겠다.

언론사와 언론계는 우선 심의기능과 기구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바꾸어서 심의기구의 위상을 격상하고, 심의기준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심의활동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해야 하며, 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심의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하겠다.

미국의 Detroit Free Press는 모든 기사에 대하여 독자로 하여금 정확도를 평가하는 설문지를 보내서 응답을 접수한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기자는 담당국장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New Yorker는 회사 내에 8명의 기사심사원(fact checker)을 두고 그들이 기사의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의 정도를 심사·평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5) 기사실명제의 확대 실시

현재 많은 언론사들은 기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사는 기사실명제를 모든 기사로 확대 실시할 뿐만 아니라 오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해야 하겠다.

6) 자체 정정노력의 강화

선진국의 언론은 오보가 발생했을 경우 스스로 정정하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Washington Journalism Review(1984. 6월호, p.27)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들은 한 주에 3~5회의 정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정정보도의 빈도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정보도를 가장 빈번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대표적 신문은 New York Times와 Louisville Courier Journal이다.

7) 비평기능의 활성화

우리 사회에는 비평다운 비평문화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공기관으로서의 언론은 비평으로부터 가장 해방된 초월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신문은 방송을 비평하고, 방송은 또한 신문을 비평하는 매체횡단적 비평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놓여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평은 모든 발전의 원동력에 해당된다. 비평이 없으면 사회와 조직은 정체되어 썩게 마련이다. 비평이 생명인 언론은 그렇기 때문에 각계의 비평들을 가슴으로부터 수용해야 한다. 비평하려면 비평을 겸손히 수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에 의한 비평, 독자들에 의한 비평, 사회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학부모단체들에 의한 비평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기구들은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비평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언론사내 비평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평은 매체횡단적 비평이라 말할 수 있다. 신문이 신문을 비평하고, 방송이 방송을 비평하고, 잡지가 잡지를 비평하는 동종매체간 비평뿐만 아니라 신문이 방송을 비평하고 방송이 또한 신문을 비평하는 이종매체간 비평문화의 정착은 오보를 줄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언론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되리라 판단된다.

8) 조사·연구기능의 확대

언론은 정보지식산업일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산업이고 의식산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조사·연구기능은 이러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그리고 기자의 전문성은 조사·연구기능에 의해서 크게 제고되고, 오보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무지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감각만으로 보도하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된다. 선배한테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과 지식만으로 보도하는 시대 또한 지난 지 오래된다. 언론은 고도의 경쟁산업이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론에 기초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은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이 경우, 이론에 토대한 기술과 지식의 활용은 조사·연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이 만나야 한다. 저널리즘과 사회과학방법론이 만나는 정밀저널리즘(precision journalism)의 도입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생각하는 기자, 공부하는 기자, 진지하고 성실한 기자,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자들이 오보를 줄이고 바른 기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9) 대기자제도의 확대운영

우리 사회에서 기자의 수명은 너무 짧은 것 같다. 모든 기자들이 현장취재를 어서 졸업하고 데스크나 이사가 되기를 원한다. 어떤 기자는 하루 속히 정계나 관계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서도 기자라고 불리는 것을 무능력과 불명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바른 보도는 기자의 경험이나 경륜과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보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초보기자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New York Times의 James Reston 기자 같이 사장이나 이사직을 마다하고 평생 기자나 만년기자가 되고 또한 그러한 기자로서 남기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우리 사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별 언론사와 언론계는 대기자제도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자들도 기자로서 살다가 죽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한다. 이러한 대기자가 많을 때 오보는 사라지게 되고 언론은 획

기적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리라 믿는다.

10) 기자안식년제의 도입과 운영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아카데미즘과 비슷한 활동이다. 아카데미즘에 안식년제가 있다면 저널리즘에도 안식년이 있어야 한다. IMF사태 이후 기자의 노동강도가 위험한 수위에 있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기사를 작성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보겠다.

언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지식산업이고 정신문화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정보와 지식을 먹고 사는 전문인이란 뜻이다. 그들에게 생각하고, 사색하고, 공부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는 시간적 여유는 바른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수적 요건이 된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년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5. 맺음말

오보의 질은 악화되고 있고, 오보의 양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보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사회의 신경계통을 붕괴시키고, 국가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암적 존재가 된다. 오보는 또한 언론의 주요기능인 정보제공의 기능, 환경감시의 기능, 사회교육의 기능, 문화전승의 기능 등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이며 반언론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이러한 오보발생의 배경은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역시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보발생의 중심 주체는 아무래도 기자 자신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직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등은 기자문제가 강구된 다음에 검토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르고 책임감 있는 기사를 배출하고 양성하는 노력을 우선해서 검토해야 한다.

바르고 책임감 있는 기자의 배출과 양성은 예비기자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기자를 뽑는 충원과정, 인사배치과정, 교육훈련과정, 윤리적 규제과정, 기사실명제과정, 심의비평과정, 기사정정과정, 대기자제도의 도입·운영과정, 그리고 기자안식년제의 도입·운영과정 등이 체계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강구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